

A Longitudinal Study on the Parenting Effectivenes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Self-esteem and Achievement Motiv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Verification of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Hyoung-Ha Lee*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Kwangju Women's University, Gwangju,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ngitudinally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effectiveness of par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self-esteem and achievement motiv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The study used the data of Multi-cultural Adolescent Panel Survey (MAPS). Of the six years of data from the 1st survey (elementary grade 4 students) in 2011 to the 6th survey (3rd year middle school students) in 2016, this study employed and analyzed the data from year 2012 (2nd survey, fifth graders), year 2014 (4th survey, 1st year middle school students), and year 2016 (6th survey, 3rd year middle school students). The results of applying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to examine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effectivenes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self-esteem and achievement motiv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re as follows. First, parenting effectiveness of par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self-esteem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autoregressive effects of achievement motivation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 effect with the passage of time. Second, the parenting effectiveness of par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at the previous time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the cross-lagged effect on self-esteem and achievement motiv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t a later time. Third, the self-esteem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t the previous time at the previous time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in the positive (+) direction on the cross-lagged effect affecting achievement motiv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t a later time. Fourth, it was found that the cross-lagged effect of the parenting effectiveness of par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on achievement motiv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was greater than the cross-lagged effect of self-esteem on achievement motiv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the longitudinal data are used to verify the causal orientation between three variables over time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effectiveness of par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self-esteem and achievement motiv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 **Key words:** Assets, Parenting Effectiveness, Self-Esteem, Achievement Motivation,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Multi-cultural Adolescent Panel Survey (MAPS)

-
- First Author: Hyoung-Ha Lee, Corresponding Author: Hyoung-Ha Lee
 - Hyoung-Ha Lee (hhlee62@kwu.ac.kr), Dept. of Social Welfare, Kwangju Women's University
 - Received: 2019. 09. 09, Revised: 2019. 10. 24, Accepted: 2019. 10. 29.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부모의 부모효능감과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 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자료는 다문화청소년패널연구(MAPS)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2011년 1차(초등학교 4학년)에서 2016년 6차(중학교 3학년)까지 총 6차년에 걸친 데이터 중, 본 연구에서는 2012년(2차, 초등학교 5학년), 2014년(4차, 중학교 1학년), 2016년(6차, 중학교 3학년)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다문화가정 부모의 부모효능감과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 간의 종단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부모의 부모효능감,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의 자기회귀효과는 각각 시간의 흐름에도 지속적인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전 시점의 다문화가정 부모의 부모효능감은 이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에 미치는 교차지연효과는 정(+)적인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이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이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교차지연효과는 정(+)적인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다문화가정 부모의 부모효능감은 다문화청소년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교차지연효과의 영향력이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교차지연효과의 영향력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부모의 부모효능감과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종단적 자료를 사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세 변인 간의 인과적 방향성을 검증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 **주제어:** 부모효능감, 자아존중감, 성취동기,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 다문화청소년패널연구

I. Introduction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국제결혼의 증가, 외국인 근로자와 북한이탈주민의 급속한 유입으로 인해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족의 적응을 돕고 한국사회의 대응방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 2010년 「1차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수립, 2012년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수립, 2014년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마련, 2017년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쳐 오고 있다. 이는 결혼이민자 등의 한국사회 정착기간이 장기화되고 가족유형도 다양화됨에 따라 안정된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여건을 촘촘하게 마련해 나가는 정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 특유의 순혈주의 문화는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인구학적 구성에 있어 그다지 관대하지 못하다. 결혼이민의 배경을 가진 부모의 한국사회의 적응 문제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의 경우 민족적 정체성 혼란과 함께 학교생활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하는 현상에 노출되어 있다[1][2].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 자녀는 한국말이 서투른 어머니 또는 아버지로 인하여 언어 소통의 어려움, 외모와 피부색의 차이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존감과 성취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3][4]. 한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적응 현상은 위험한 외부요인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주는 '보호요인'을 키워줌으로써 성취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즉, 이러한 보호요인으로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효능감 등이 있으며, 청소년 자신의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등이 있으며, 사회환경적인 요인으로 사회적지지, 또래와의 관계 등이 있다[1][5-6].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는 부모, 교사, 또래친구 등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가정의 높은 사회경제적 요인과 교사와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7].

기존의 연구들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부모세대만을 분리하여 연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모세대에 대한 연구는 차별과 부적응, 경제적 어려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학교부적응, 우울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많았다[3].

그러나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부모세대와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정서적 지원과 부모의 양육태도를 전반적으로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조사시점의 횡단적 자료에 나타난 결과보다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화를 이해하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종단적 분석을 통해 다문화가정 청소년 부모의 가족관련 요인으로 부모효능감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개인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을 설정하고, 이들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 다문화가정 청소년 부모의 부모효능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연구문제 2 : 다문화가정 청소년 부모의 부모효능감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연구문제 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연구문제 4: 다문화가정 청소년 부모의 부모효능감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II. Theoretical Background

1. Parenting Efficacy

부모효능감은 Bandura(1982)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바탕을 둔 개념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문제가 발생해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자기능력에 대한 지각이나 판단을 말한다[1]. 부모효능감은 개개인의 분리된 별개의 변인이기보다는 가정이라는 독특한 상황과 관련하여 잘 적응하고 변화할 수 있으며, 부모로서의 목적 달성과 현실의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각이다. 이와 더불어 부모효능감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발생하는 자녀와의 문제 등도 훌륭히 대처할 수 있는 부모로서의 자신에 대한 자각을 의미한다[8].

따라서 부모효능감은 부모 스스로 자녀의 행동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을 의미한다[9-10]. 효능감은 과거 비슷한 분야에서 성취경험이나 타인의 행동에 대한 관찰이나 모방으로 생겨나며, 부모효능감은 직접적으로는 적절한 부모 역할을 수행했던 경험, 또

는 간접적인 관찰을 통한 부모역할 경험 등의 방식으로도 증진될 수 있다[11].

선행연구에서도 부모효능감은 자녀의 학습케어 형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긍정적 통제를 거쳐 청소년의 학교생활에서 다양한 문제를 감소시켜 학교적응 수준을 높인다고 보고 하였다[8-9][12]. 또한 김순규(2012)의 연구에서는 아동과 부모가 만족스러운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부모의 격려와 지지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을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고 하였다[13].

2. Self Esteem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자신을 수용, 존중하고 자신을 좋아하며 스스로 가치 있는 인간으로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14-15]. 자아존중감은 인간행동의 기본적인 동기이자 사회심리적 적응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16-17]. Banks(1984)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이나 자아존중감이 타인을 존중하고 편견 없는 긍정적 시각을 갖게 하는 전제조건이라고 하였다[18].

그러나 자아존중감은 사회화 과정서 성공이나 실패 경험, 타인과의 상호작용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가변적 마음상태이다[19]. 즉, 자아존중감은 타인이나 집단의 반응을 통해 기꺼이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정도를 감지하고 이를 조절하는 개념의 가변성을 지닌다[1].

선행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에게는 긍정적으로 행동하도록 동기를 유발되고 높은 성취동기를 가지도록 하며, 이를 통해 보다 높은 활동력을 가지고 더 나은 수행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동기 유발요인이라고 하였다[20]. 따라서 가정과 부모와의 관계에서 축적된 긍정적 인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과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사회화 과정을 위한 기본적인 태도 형성에 중요한 영향요인이 되고 있다[3].

3. Achievement Motivation

성취동기는 Murray(1938)가 처음 소개한 인간의 동기 체계 중 하나로, 어려운 일을 이루려는 욕망, 장애물을 극복하고 높은 수준의 성취를 하려는 욕망, 자기 자신을 능가하려는 욕망, 타인과 경쟁하고 그를 능가하려는 욕망을 의미한다[21]. 또한, 성취동기는 오로지 자신의 노력을 통해 가치 있고 중요한 어떤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우수한 수준에 도달하고자 하는 동기를 의미한다[20][22].

일반적으로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은 의미가 있고 도전할만한 가치가 있는 과업을 보다 잘 수행해낸다. 또한, 과

업의 성취에 따른 외적인 보상보다는 성취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와 능력에 관심을 갖고, 장기계획 수립을 통해 미래에 얻게 될 성취만족을 기대하며 꾸준히 노력한다[21]. 선행연구에 의하면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모-자녀관계, 교사관계, 자아존중감 등으로 분석되었다 [20-21][23]. 특히 초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중학생의 경우는 부모-자녀관계가 고등학생에 비교해 성취동기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3].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비록 사회적 지지가 낮게 지각하여도 성취동기가 높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21].

III. The Research Method

1. Analytical data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패널연구(MAPS)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MAPS 데이터는 조사 첫해인 2011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 및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1,625가구(학생 1,635명, 학부모 1,615명)를 대상으로 구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2차, 초등학교 5학년), 2014년(4차, 중학교 1학년), 2016년(6차, 중학교 3학년)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Research model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모효능감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세 변수 간에는 상호적인 인과관계가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시기에 해당하는 다문화 청소년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효능감과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의 지속 양상과 상호 간의 인과적 방향성을 검증하기 위해 <Fig 1.>과 같은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검증해야 할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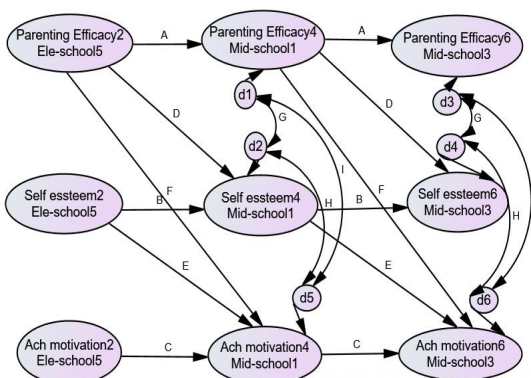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3. Measuring tools

본 연구의 잠재변수는 부모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이다. 부모효능감 척도는 9문항에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2차, 4차, 6차년도에 걸쳐 요인적재치가 모두 기준치($B=0.5$)보다 큰 4문항을 최종 선별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4문항에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2차, 4차, 6차년도에 걸쳐 요인적재치가 모두 기준치($B=0.5$)보다 크게 분석되었다.

성취동기 척도는 8문항에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2차, 4차, 6차년도에 걸쳐 각 문항들이 상이한 요인값을 나타내 요인값이 낮은 2개 문항을 제외하고 하위집단 간에 표준화 요인적재량 평균이 비슷하게 요인 묶음방법(factor-parceling approach)을 적용하여 3문항씩 2개의 하위집단으로 최종 항목묶음을 실시하였다[24-25].

4. Analysis method

본 연구는 자료의 점검과 분석을 위해 통계패키지 SPSS 18.0과 AMOS 25.0을 사용하였다. 자료의 점검 단계에서 자료분포의 정규성 가정을 충족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분석하였다. 변수의 일반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기술통계, 신뢰도분석, 상관관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 단계에서는 최대우도추정(MLE) 방식으로 χ^2 통계량과 함께 TLI, CFI, RMSEA 등의 적합도 지수를 계산하였다. 측정모형의 검증과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의 검증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였다.

IV. Results of the study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본격적인 모형 검증 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변인들 간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

부모효능감2차, 부모효능감4차, 부모효능감6차 동일변수 간에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자아존중감2차, 자아존중감4차, 자아존중감6차 동일변수 간에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성취동기2차, 성취동기4차, 성취동기6차 동일변수 간에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3개 시점의 부모효능감과 3개 시점의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 간에도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Table 1.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Descriptive Statistics Between Measured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	1								
(2)	.508**	1							
(3)	.450**	.553**	1						
(4)	.196**	.166**	.159**	1					
(5)	.069*	.141**	.120**	.426**	1				
(6)	.102**	.152**	.198**	.369**	.478**	1			
(7)	.170**	.168**	.100**	.525**	.264**	.223**	1		
(8)	.069*	.155**	.141**	.305**	.525**	.338**	.376**	1	
(9)	.086**	.171**	.215**	.242**	.324**	.545**	.270**	.422**	1
Mean	13.61	13.44	13.26	12.67	12.80	12.56	17.48	17.94	18.20
S.D.	2.67	2.66	2.68	2.19	2.14	2.19	3.08	3.11	2.98
Skewness	-.240	-.192	-.046	-.252	-.145	-.117	-.282	-.012	-.089
Kurtosis	.192	.345	.262	-.165	-.396	-.001	.645	.119	.608

*p<.05, **p<.01

(1)Parenting efficacy 2nd, (2)Parenting efficacy 4th, (3)Parenting efficacy 6th, (4)Self esteem 2nd, (5)Self esteem 4th, (6)Self esteem 6th, (7)Achievement motivation 2nd, (8)Achievement motivation 4th, (9)Achievement motivation 6th

부모효능감 평균은 3개 시점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으로 변화가 거의 없고, 자아존중감 평균도 3개 시점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으로 변화가 거의 없고, 성취동기 평균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약간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부모의 부모효능감,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가 각각 매우 안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자료분포의 정규성 가정을 충족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분석한 결과, 부모효능감, 자아존중감, 성취동기 변인 모두 왜도의 절대값이 3을 넘지 않았고 첨도의 절대값이 10을 넘지 않았으므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대[25-26].

부모효능감 신뢰도는 ronbach'α=0.784~.820으로 분석되었다. 자아존중감 신뢰도는 ronbach'α=0.793~.831으로 분석되었다. 성취동기 신뢰도는 ronbach'α=0.883~.891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모두가 신뢰도가 검증된 척도임을 확인하였다.

2. Testing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부모의 부모효능감,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 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상호방향성을 검증하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모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세 가지 동일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측정동일성, 경로동일성, 오차공분산 동일성이 그것이다[1][27].

모형은 총 13단계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1: 기저모형(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

모형 2: 모형 1에 추가하여 부모효능감의 측정변수들의 요인적재치(a1, a2, a3)가 3개의 조사 시점에서 모두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3: 모형 2에 추가하여 자아존중감의 측정변수들의 요인적재치(b1, b2, b3)가 3개의 조사시점에서 모두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4: 모형 3에 추가하여 성취동기의 측정변수들의 요인적재치(c1)가 3개의 조사시점에서 모두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5: 모형 4에 추가하여 부모효능감의 자기회귀계수(A)에 대하여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6: 모형 5에 추가하여 자아존중감의 자기회귀계수(B)에 대하여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7: 모형 6에 추가하여 성취동기의 자기회귀계수(C)에 대하여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8: 모형 7에 추가하여 자아존중감에 대한 부모효능감의 교차회귀계수(D)에 대하여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9: 모형8에 추가하여 성취동기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교차회귀계수(E)에 대하여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10: 모형 9에 추가하여 성취동기에 대한 부모효능감의 교차회귀계수(F)에 대하여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11: 모형 10에 추가하여 부모효능감과 자아존중감 간의 오차공분산(G)에 대하여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12: 모형 11에 추가하여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 간의 오차공분산(H)에 대하여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13: 모형 12에 추가하여 부모효능감과 성취동기 간의 오차공분산(I)에 대하여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위에 제시된 모형들 중에서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하여 모형 1부터 모형 13까지 순차적으로 두 개의 모형씩 비교했는데, 이 13개의 모형이 서로 내포된 관계이므로 모형 비교를 위해 x2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Table 2. 참조). 그런데 x2 검증과 유사하게 x2 차이 검증도 표본 크기에 민감성을 보여 미세한 차이에도 모형 간의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아 모형 비교에 있어서 χ^2 통계량 외에 적합도 지수 중 TLI, CFI, RMSEA 값을 함께 고려하였다. TLI와 CFI가 0.90 이상이면, 그리고 RMSEA가 0.05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라고 해석하였다[28-29]. 따라서 적합도 지수가 더 양호하고 자유도가 가장 큰 모형 13이 우수한 모형으로 분석되어 본 연구의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Table 2. Comparison of the goodness-of-fit of regression delay model between parenting efficacy, self-esteem, and achievement motivation

Model	χ^2	df	TLI	CFI	RESEA (90% CI)	$\Delta\chi^2$	Δdf	ΔCFI
Mo1	1657.817***	357	.923	.941	0.047 (0.045~0.050)			
Mo2	1669.140***	363	.924	.940	0.047 (0.045~0.049)	11.323	6	-.001
Mo3	1671.271***	369	.925	.941	0.046 (0.044~0.049)	2.131	6	.001
Mo4	1672.418***	371	.926	.941	0.046 (0.044~0.049)	1.147	2	0
Mo5	1674.773***	372	.926	.941	0.046 (0.044~0.049)	2.355	1	0
Mo6	1676.305***	373	.926	.940	0.046 (0.044~0.049)	1.532	1	-.001
Mo7	1676.384***	374	.926	.941	0.046 (0.044~0.048)	0.079	1	.001
Mo8	1682.145***	375	.926	.940	0.046 (0.044~0.048)	5.761*	1	-.001
Mo9	1702.370***	377	.925	.939	0.046 (0.044~0.049)	20.225***	2	-.001
Mo10	1705.251***	378	.925	.939	0.046 (0.044~0.049)	2.881	1	0
Mo11	1705.273***	379	.925	.939	0.046 (0.044~0.049)	0.022	1	0
Mo12	1705.793***	380	.926	.939	0.046 (0.044~0.048)	0.520	1	0
Mo13	1706.084***	381	.926	.939	0.046 (0.044~0.048)	0.291	1	0

*p<.05, ***p<.001

최종 연구모형인 모형 13의 구조모형 추정치는 Table 3.에 정리되어 있다.

Table 3. Estimation of Structural Model of Final Research Model

Path		B	S.E.	B	C.R.
Parenting efficacy 2nd	→ Parenting efficacy 4th	.639***	.019	.627***	33.851
Parenting efficacy 4th	→ Parenting efficacy 6th	.639***	.019	.645***	33.857
Self esteem 2nd	→ Self esteem 4th	.439***	.018	.441***	23.771
Self esteem 4th	→ Self esteem 6th	.439***	.018	.436***	23.771
Achievem entmotiva tion 2nd	→ Achievem entmotiva tion 4th	.387***	.017	.383***	22.404
Achievem entmotiva tion 4th	→ Achievem entmotiva tion 6th	.387***	.017	.408***	22.404
Parenting efficacy 2nd	→ Self esteem 4th	.028*	.013	.044*	2.170
Parenting efficacy 4th	→ Self esteem 6th	.028*	.013	.045*	2.170
Parenting efficacy 2nd	→ Achievem entmotiva tion 4th	.135***	.041	.064***	3.292
Parenting efficacy 4th	→ Achievem entmotiva tion 6th	.135***	.041	.069***	3.292
Self esteem 2nd	→ Achievem entmotiva tion 4th	.094***	.006	.028***	15.375
Self esteem 4th	→ Achievem entmotiva tion 6th	.094***	.006	.030***	15.375

*p<.05, ***p<.001

자기회귀계수를 통해 다문화가정 부모의 부모효능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가 각각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지속적인 상호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부모의 부모효능감은 시간의 흐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전 시점의 부모효능감은 이후 시점의 부모효능감($B=.627, B=.645, p<.001$)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시간의 흐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전 시점의 자아존중감은 이후 시점의 자아존중감($B=.441, B=.436, p<.001$)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청소년의 성취동기는 시간의 흐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전 시점의 성취동기는 이후 시점의 성취동기($B=.383, B=.408, p<.001$)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에 따른 안정성에 있어 다문화가정 부모의 부모효능감이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 보다 안정도 계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교차회귀계수를 통해 다문화가정 부모의 부모효능

감과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 간의 관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호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전 시점의 다문화가정 부모의 부모효능감은 이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B=.044$, $B=.045$, $p<.05$)과 성취동기($B=.064$, $B=.069$, $p<.001$)에 미치는 교차지연효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이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이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성취동기($B=.028$, $B=.030$, $p<.001$)에 미치는 교차지연효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이전 시점의 다문화가정 부모의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이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이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이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성취동기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다문화가정 부모의 부모효능감은 다문화청소년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교차지연효과의 영향력이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교차지연효과의 영향력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최종 연구모형의 경로 및 구조회귀계수는 <Fig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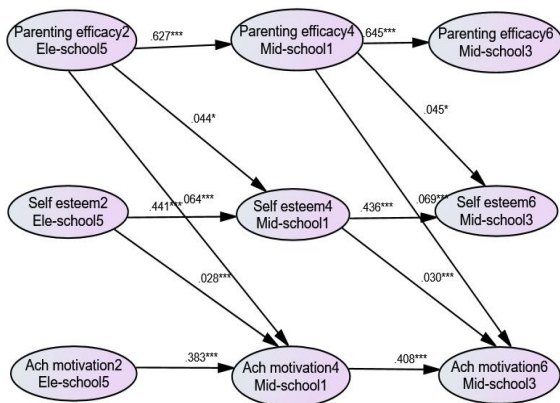


Fig. 2. Structure model path diagram of final research model

V. Conclusions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부모효능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과 성취동기 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상호영향의 인과적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하여 세 변인간의 종단적 상호관계를 검증하였다. 특히 아동기에서 청소년 전기로 이행하는 과정의 다문화청소년의 성취동기 변화량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문화청소년패널연구(MAPS) 데이터 2011년 초등학교

4학년 패널 중 2차년도(초등학교 5학년), 4차년도(중학교 1학년), 6차년도(중학교 3학년)에 걸친 종단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부모효능감 평균은 3개 시점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으로 변화가 거의 없고, 자아존중감 평균도 3개 시점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으로 변화가 거의 없고, 성취동기 평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약간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선행연구[23]에서 주장한 아동기보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부모의 영향력보다 교사, 또래관계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성취동기 또한 높아진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둘째,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부모효능감이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각각 시간의 경과에 따른 안정성을 자기회귀계수를 통해 알아본 결과, 이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부모효능감이 이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자기회귀효과는 모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시점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와의 관계만족도는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3].

셋째,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성취동기에 각각 시간의 변화에 따른 안정성을 자기회귀계수를 통해 알아본 결과, 이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이후 시점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자기회귀효과는 모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시점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이후 시점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성취동기가 높다는 의미로, 이전 시점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다면 이후 시점의 성취동기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성취동기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지지한다[20].

넷째, 연구문제 4와 관련하여,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부모효능감이 성취동기에 각각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안정성을 자기회귀계수를 통해 알아본 결과, 이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부모효능감이 이후 시점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자기회귀효과는 모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시점에서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부모효능감이 높은 경우 이후 시점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성취동기가 높다는 의미로, 이전 시점의 부모효능감을 향

상시킨다면 이후 시점의 성취동기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부모효능감은 청소년 자녀의 학교생활스트레스 수준을 낮출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삶과 정서를 개선하려는 성취동기를 강화하는 변인이라는 주장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30].

본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전 시점의 부모효능감은 이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는 것을 볼 때, 다문화가정 부모에 대한 부모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부모와 청소년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다문화가정 정책은 한국문화이해와 의사소통능력 발달을 위한 언어교육 프로그램과 같이 다문화가정 부모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1차적인 정책들이 우선하였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부모의 부모효능감을 지속적으로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적응정책과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동등한 한국시민으로 활동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정책이 지역사회,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 적극 개입하여야 한다[1][9].

둘째, 이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이후 시점의 성취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는 것을 볼 때, 부모와의 정서적 교류와 유대관계 강화와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교류를 통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자신이 가치 있음을 새롭게 지각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방법도 필요하다[15][20].

셋째, 다문화청소년의 성취동기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학교의 교사와의 유대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교사는 다문화청소년의 잠재된 능력을 찾아내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부모의 부모효능감과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의 특정한 조사연도의 횡단적 시점에서 일방향의 관계를 규명했던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부모와 청소년을 동시에 포함한 종단적 자료를 사용하여 세 변인 간의 인과적 방향성을 검증하는데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에 대한 보다 심층적 이해를 위한 의미 있는 연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보완점들이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관련 변인들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다. 예를 들어, 교사관계, 또래관계, 차별경험 등의 변인들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밝혀내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다음으

로 본 패널의 설문대상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어머니로 한정되어 있어 부모의 성별요인, 부모의 출신국가에 따른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세분화된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ACKNOWLEDGEMENT

This paper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s of Kwangju Women's University in KWUI19-036.

REFERENCES

- [1] Jyoon,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of the reciprocal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efficacy student's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in multi-cultural family,"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Vol. 23, No. 6, pp. 775-798, Dec. 2017. DOI : 10.24159/joec.2017.23.6.775
- [2] Hscheon and gspark, "A Study on the School Life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Contemporary society and multicultural*, Vol. 2, No 2, pp. 416-444, Dec. 2012.
- [3] Jcle, "The Effect of Parent's Relationship Satisfaction on Depression, Self-esteem, and School Adaptability on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Vol. 25, No. 2, pp. 877-897, Apr. 2019. DOI : 10.24159/joec.2019.25.2.877
- [4] Schan, "Analysis of Influence Factors on Resilience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y,"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Vol. 9, No. 4, pp. 239-258, Dec. 2015. UCI : G704-002141.2012.9.4.010
- [5] R. J. Dent, and R. J. S. Cameron, "Developing resilience in children who are in public care: the educational psychology perspective," *Educational Psychology in Practice*, Vol. 19, No. 1, pp. 3-19, Jul. 2003. <https://doi.org/10.1080/0266736032000061170>
- [6] O. Friborg, O. Hjemdal, J. H. Rosenvinge, and M. Martunussen, "A new rating scale for adult resilience: what are the central protective resources behind healthy adjus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Methods in Psychiatric Research*, Vol. 12, No. 2, pp. 65-76, Jun, 2003. DOI: 10.1002/mpr.143
- [7] Mhpark,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the factors influencing academic achievement of multicultural students,"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Vol. 10, No. 4, pp. 27-54, Dec, 2017. DOI : 10.14328/MES.2017.12.31.27
- [8] Oscho, and hsbang, "The Effects of Daily Life Stress on the Learning Care Style of Multicultural Parents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Parent Efficacy," *Journal of Convergence for*

- Information Technology, Vol. 8, No. 4, pp. 173-180, Aug, 2018. DOI : 10.22156/CS4SMB.2018.8.4.173
- [9] Srkim, shlee, yjkoo, and ktlee, "The Effect of Parental School Involvement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he Mediating Role of Parental Efficacy,"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Vol. 23, No. 4, pp. 139-154, Mar, 2016. DOI : 10.15284/kjhd.2016.23.4.139
- [10] P. K. Coleman, and K. H. Karraker, "Parenting self-efficacy among mothers of school-age children: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correlate," *Family Relations*, Vol. 49, No. 1, pp. 13-24, Feb, 2000. DOI: 10.1111/j.1741-3729.2000.00013.x
- [11] M. Hohman, *Motivational Interviewing in Social Work Practice*, New York, NY, US: Guilford Press, Jul, 2012. <https://doi.org/10.1177/1468017305051365>
- [12] J. H. Lee, O. I. Park, J. H. Kim, and J. S. Park, "The Effect of the Children's School Adjustment on Family Strength, Social Support and Parental Efficacy according to Their Parents Perception," *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y Living Science*, Vol. 24, No. 1, pp. 13-25, 2013. UCI : G704-001337.2013.24.1.001
- [13] Sgkim, "A Study on Influencing Factors on Self-esteem of Multi-Cultural Families Children in Korea,"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9, No. 6, pp. 109-128, Jun, 2012. UCI : G704-000387.2012.19.6.007
- [14]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May, 1965. DOI: 10.1126/science.148.3671.804
- [15] Sklee, and smjun, "Factors that have Impacts on the Multi-Culture Accepta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Focused on Self-Esteem, Community Closeness, Peer Attachment,"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 16, No. 4, pp. 103-121, Dec, 2014. UCI : G704-002137.2014.16.4.013
- [16] Mrlee, "Relationships of Self-Esteem with Family-, Friend-, School-, Leisure-, and Jod-Related Variables in Early Adolescence: Focusing on Positive and Negative Self Evaluations," *Studies on Korean Youth*, Vol. 30, No. 2, pp. 333-363, Jun, 2005. UCI : G704-001385.2005.16.2.008
- [17] Hrchoi, "A Study on College Students Self Esteem , Depression and Family Self,"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1, No. 2, pp. 183-197, Dec, 1999. <http://lod.nl.go.kr/resource/KSI000021439>
- [18] J. A. Banks, *Education citizens in a multicultural society*(2nd ed.).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Aug, 2007. <https://doi.org/10.1080/15210960801998096>
- [19] R. F. Baumeister, and D. M. Tice, "Self-esteem and responses to success and failure: Subsequent Performance and Intrinsic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Vol. 53, No. 3, pp. 450-467, Sep, 1985. DOI: 10.1111/j.1467-6494.1985.tb00376.x
- [20] Jmhyun, hsshin, and sjlee, "The Effect of Family Environment Variables, Self-Esteem and family strengths on Achievement Motivation Perceived by the Adolescents,"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Vol. 26, No. 3, pp. 1-15, Sep, 2014. UCI : G704-000502.2014.26.3.003
- [21] Jykim, and jshong,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Achievement Motivation in Out-of-School Youth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 25, No. 2, pp. 393-412, Dec, 2017. DOI : 10.35151/kyci.2017.25.2.018
- [22] J. S. Hyde, and H. K. Kling, "Women, motivation, and achievement,"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Vol. 25, No. 4, pp. 364-378, Dec, 2001. <https://doi.org/10.1111/1471-6402.00028>
- [23] Jhmoon, and jsbaik, "A comparative study of the influence of relationship with parents, peer and teacher on academic self-efficacy and achievement motivation in early and middle adolescenc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and environment*, Vol. 10, No. 3, pp. 39-50, Aug, 2012. UCI : G704-001838.2012.10.3.012
- [24] Syoh, "The Empirical Study of Various Item Parceling Methods on Multidimensional Scales in CFA and SEM,"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Vol. 29, No. 2, pp. 313-345, May, 2017. DOI : 10.17927/tkjems.2017.29.2.313
- [25] Khkim, "Application of Item Parceling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Journal of Welfare for the Administration*, Vol. 16, pp. 53-80, Dec, 2018.
- [26] W. C. Chien, "Application of item parceling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correlational study of undergraduate students' academic behavior, employability and employment perform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lligent Technologies and Applied Statistics*, Vol. 8, No. 1, pp. 29-44, Mar, 2015. <https://doi.org/10.1080/19312450802458935>
- [27] Shhong, smpark, and wjkim, "Testing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Effects between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and Communication with Parents: Multigroup Analysis across Gender,"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21, No. 1, pp. 129-143, Mar, 2007. UCI : G704-000199.2007.21.1.001
- [28] G. W. Cheung, and R. B. Rensvold, "Evaluating goodness-of-fit indexes for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Vol. 9, No. 2, pp. 233-255, Apr, 2002. DOI: 10.1207/S15328007SEM0902_5
- [29] Khkim, "Testing the Bidirectional Relationship between Aggression and Adult Material Addiction in Adolescents: Apply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Vol. 43, pp. 27-47, Sep, 2018. DOI : 10.20993/jSSW.43.2
- [30] Stlim, and sehong, "The relations of parents' efficacy to adolescents' psychological well-being: adolescents' stress of

school life as a mediator,”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Vol. 15, No. 3, pp. 93-111, Sep, 2018. DOI : 10.34244/fy.2018.15.3.93

Authors



Hyoung-Ha Lee received the M.S. and Ph.D. degrees in Social Welfare from Dongshin University, Korea, in 2000, and 2004, respectively. Dr. Lee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t Kwangju

Women’s University, Gwangju Metropolitan city, Korea, in 2004. He is interested in Poverty problems, Multicultural migration and Baby parent generation.